

월요일객석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공론화와 재생에너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이 등장한 배경은 원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 때문이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원전은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공학적 관점에서 사고는 완벽히 방지할 수 있다는 데다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원전 전문가들의 확신과 달리 원전은 안전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축이나 사용후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방

사능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설령 공학적 오류가 없어도 인간의 실수가 사고를 일으켰다. 과학은 안전을 장담하지만 사람들은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성에 쫓긴다.

인도라면 신고리 5.6호기는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도는 인구 10만명 도시 반경 30km 이내에는 원전 건설이 진행하지 않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방이 최근에 엉뚱하게 재생에너지로 튀었다.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체제로 논의하는 에너지는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처럼 석유, 나야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등장해서 신기후체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태마크는 석유 파동 이후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 풍력을 시작한 나라이다. 영국과 중국은 원전을 유지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시하는 나라이다.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믿음직하지 못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회적 비난인 셈이다.

대세를 외면하다가가는 미래가 없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미 산업과 시장의 대세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해결책이다.

경제산책

한국은행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백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노인부양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5년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누적효과가 각각 0.1%p와 0.35%p씩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록했던 연평균 3.9%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2025년엔 평균 1.9%까지 하락하고, 2026~2035년엔 0.4%까지 급락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부정적인 효과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

7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장기 인플레이션도 2020년대 이후 0.02~0.06%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러한 함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과 이민 유입정책 등을 제시했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을 좌우한다?

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데다 은퇴 이후 근로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령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끈다.

한은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약 50년 뒤인 2065년에는 고령인구 상승으로 노동세입이 지난 2015년 대비 72% 줄어들고, 자본세입도

지 향상에 초점을 뒀던 인구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로 전환하고, 출산율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율로 이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이민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정훈 기자 joh@

社說

에너지전환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국민에 알리자

에너지전환은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 슈테판 아우어 독일대사의 한마디는 치열한 '에너지전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게 다가왔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은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에너지수급 감소, 일자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으며 독일의 경우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모토로 내건 정당에 투표하고, 그런 정부 정책에 찬성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싼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후대에 보

다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겠다는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원전을 둘러싼 공론화 활동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보면 찬반측 모두 독일의 사례를 인용하는데, 독일 국민들이 보여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보다는 현재 지불해야할 비용에 무게를 둔 주장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전환의 속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어야 한다.

천원·만원을 넘어 '에너지전환'은 긴 호흡을 갖고 현재 보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바라볼 경우 해답은 의외로 간단히 찾을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취업률 97% 전문 인력양성기관을 벤치마킹해야

전기철도기술협회가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면서 취업률을 97%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인력난의 겪고 있는 전기 시공 분야가 인재양성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기 힘든 인력양성 사업에서 큰 수확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거듭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교육생의 눈높이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중 한 것 같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체 교육시간 220시간 중 절반 이상인 110시간을 초·중·고등학교 구상해 최대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교육생들의 현장 감각을 키우기 위한 현장실습·기술 워크숍·외부 견학활동도 확대했다. '전문기술인력은 현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교육 이념을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정부의 지원도 활발하고 다양한 곳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은 채워지기는 커녕 심화되고 있다. 인력양성을 고민하는 기관이 있다면 전기철도기술협회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등록 서울다 06432호. 사정·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홍우, 편집장: 유희덕, 인쇄: 문화일보.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가길 8 (등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정실: (02) 2168-1301-2, 부사정실: (02) 2168-1303-4, 편집팀: (02) 2168-1312-5, 전역엔지니어링: (02) 2168-1320-4, 산업경제팀: (02) 2168-1330-4, 건설시공팀: (02) 2168-1340-2. 광고 1팀: (02) 2168-1351-4, 광고 2팀: (02) 2168-1355-7, 경영지원팀: (02) 2168-1306-8, 전역시공팀: (02) 2168-1360-1, 전역시공팀: (02) 2168-1349. 광고문의: (02) 2168-1351-7, FAX: 2168-1349, 구독문의: (02) 2168-1306-8, FAX: 2168-1349. 본사: 외국계회사, 중국전력보(중국), 베트남전(베트남), 기저널(미국), 몽골 E&EN 지사. 매주 월-목요일 발행 구독료 월 8,000원 연 96,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ostool MS-400 BATTERY CRIMPING TOOL, MS-85C BATTERY CABLE CUTTER. HUPON HPN-400RN, HPN-400A. HUPON HPN-400RN 16-400mm, HPN-400A 16-400mm. HUPON HPN-400RN 16-400mm, HPN-400A 16-400mm. HUPON HPN-400RN 16-400mm, HPN-400A 16-400mm.

견적, 적산 시스템은 아성정보 COST로 앞서 나가십시오. 전기적산통합(전기, 통신, 소방) CAD파일도면 물량적산까지. 국내최초 특허출원 적산프로그램, 획기적인 AutoCAD파일 도면물량적산까지. 관급, 사급, 설계업체에서 시공업체까지 건설관련 전업종에서 사용가능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조,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 인테리어, 시설물 등). 정부(조달청)인증 소프트웨어로 적산과 동시에 내역지동작성. 최신 차세대가. 일위대가, 정부노임, 품셈, 실적공사비등 자료 제공. 아성정보 홈페이지->자료실->사용설명서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통합내역 / 전기적산 / 설비적산 / 골조적산 / 마감적산 / 노무관리. 아성정보(주) 문의전화: (053)751-6715 팩스: (053)753-5015 홈페이지: www.asungsoft.co.kr